

치 사

푸른 빛을 더하며 깊어진 하늘에 선선한 바람과 가을향이 가득합니다. 비단 정진하는 대중뿐만 아니라 현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한 삶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때에 향적스님께서 불은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그간의 덕화를 부처님께 올리는 경건한 자리를 마련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진의 결실을 기꺼이 나누겠다는 향기로운 마음이기 에, 모두의 생각 또한 맑아지고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더불어 풍성한 계절과 같이 수행자로서의 수확을 많은 대중과 나누겠다는 소중한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박하게 써내려간 조그마한 책이지만,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문화의 공지와 서로를 바라보는 존경의 시선이 향기롭고 따뜻하게 담겨 있습니다. 더우기 세계적인 문화적 자산과 역사, 그리고 공지를 지닌 프랑스 국민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은 한국 불교로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이 책을 접하는 누구라도 종교가 갖는 궁극의 목표와 수행정진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잔잔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자연과 소통하고 대중을 위하는 것, 대화와 공존의 지혜를 몸소 실천하는 것, 인류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그 어떤 장애물도 쉬이 넘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질에 우선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일수록 공동체의 삶과 정신문화는 그만큼 삶의 의지처이며 인성을 회복하는 더없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통 수행문화, 이러한 문화적 감성이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 수도원에서 가졌던 고행이 이제는 인류가 스스로 쳐놓은 경계를 걷어낼 수 있는 원력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수행 공동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대의 유산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넘어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에 도달하는 지혜를 발견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깊은 관심과 인연으로 함께하신 프랑스 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진력하는 우리 종단 포교원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줄 한줄에 담긴 향적스님의 생생한 시선과 따뜻한 마음이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으로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